

2023.3/4분기 미국 GDP 성장률(속보) 4.9%

1. 2023.3/4분기 미국 GDP

- '23.3/4분기 GDP성장률(전기비 연율)은 소비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재고 투자 확대 및 주택투자 증가 전환에 따라 전분기(2.1%)보다 높은 4.9%를 기록
 - 개인소비('23.2/4 0.8% → 3/4 4.0%)는 재화*(0.5% → 4.8%) 및 서비스** (1.0% → 3.6%) 소비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커짐 <성장률 기여도: '23.2/4 0.55%p → 3/4 2.69%p>
 - * 기타 비내구재(4.7% → 22.7%), 여가 관련 재화 및 차량(20.0% → 28.5%) 등이 큰 폭 증가
 - ** 주거 및 유틸리티(4.2% → 22.4%), 헬스케어(16.1% → 19.5%) 등의 증가폭이 확대 되고, 음식 서비스 및 숙박(-2.4% → 14.2%)도 큰 폭의 증가로 전환
 - 민간투자(5.2% → 8.4%)는 설비(7.7% → -3.8%)가 감소 전환하였으나, 재고 투자*가 늘어난 가운데 주택(-2.2% → 3.9%)이 증가로 돌아서면서 증가폭이 확대 <성장률 기여도: 0.90%p → 1.47%p>
 - * 재고투자의 성장률 기여도: '23.2/4분기 0.00%p → 3/4분기 1.32%p
 - 순수출은 수출(-9.3% → 6.2%)이 증가 전환하였으나, 수입(-7.6% → 5.7%) 역시 증가하면서 마이너스의 성장기여도를 보임 <성장률 기여도: 0.04%p → -0.08%p>
 - 정부지출(3.3% → 4.6%)은 연방정부의 국방(2.3% → 8.0%) 부문이 확대된 가운데 비국방(-0.4% → 3.9%) 부문이 증가 전환하고, 지방정부(4.7% → 3.7%) 지출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증가세가 확대 <성장률 기여도: 0.57%p → 0.79%p>

(%, 전기비 연율)

	2021		2022				2023		
	연중	연중	1/4	2/4	3/4	4/4	1/4	2/4	3/4
GDP	5.8	1.9	-2.0	-0.6	2.7	2.6	2.2	2.1	4.9
개인소비	8.4	2.5	0.0	2.0	1.6	1.2	3.8	0.8	4.0
민간투자	8.7	4.8	6.2	-10.6	-7.6	3.4	-9.0	5.2	8.4
비주택	5.9	5.2	10.7	5.3	4.7	1.7	5.7	7.4	-0.1
(구조물)	-3.2	-2.1	-1.2	-0.5	-1.3	6.5	30.3	16.1	1.6
(설비)	6.4	5.2	16.8	4.9	5.6	-5.0	-4.1	7.7	-3.8
(지식재산생산물)	10.4	9.1	11.4	8.7	7.1	6.1	3.8	2.7	2.6
주택	10.7	-9.0	-1.8	-14.1	-26.4	-24.9	-5.3	-2.2	3.9
재고증감 ¹⁾	0.26	0.62	-0.07	-2.05	-0.66	1.61	-2.22	0.00	1.32
순수출 ¹⁾	-1.25	-0.48	-2.59	0.56	2.58	0.26	0.58	0.04	-0.08
수출	6.3	7.0	-4.6	10.6	16.2	-3.5	6.8	-9.3	6.2
수입	14.5	8.6	14.7	4.1	-4.8	-4.3	1.3	-7.6	5.7
정부지출	-0.3	-0.9	-2.9	-1.9	2.9	5.3	4.8	3.3	4.6
GDP 디플레이터	4.6	7.0	8.4	9.1	4.5	3.9	3.9	1.7	3.5
근원 PCE상승률	3.6	5.2	6.0	4.7	5.0	4.7	5.0	3.7	2.4

주: 1)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(%p)

자료 : BEA

작성자 : 임태균 과장

2. 시장참가자들의 평가

- 시장에서는 '23.3/4분기 GDP성장률이 컨센서스(4.5%)를 상회한데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견조한 가운데 재고투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,

향후에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및 금융여건 등에 따라 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

* 국내최종(민간)판매증가율(%): '23.1/4 3.8(3.6) → 2/4 2.0(1.7) → 3/4 3.5(3.3)

- 3/4분기 근원PCE 물가상승률(2.4%, 전기비 연율)이 시장 컨센서스(2.5%)를 하회함에 따라 금리상승 우려도 완화된 것으로 평가

<주요 투자은행 등의 코멘트>

- **(Morgan Stanley)** '23.3분기 GDP 성장의 상당부분이 재고투자에 기인. 연말에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및 금융여건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투자 및 비주거용 고정투자가 약세를 보여 23.4분기 GDP 성장률은 0.7%로 낮아질 전망
- **(BOA)** '23.3분기 GDP는 추세 이상의 성장을 시현. 내구재 및 서비스 수요 확대 영향으로 소비가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, 금리에 민감한 주택투자는 그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증가 전환. 그러나 향후에는 정부재정 여력이 약화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구조물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축소될 우려
- **(CITI)**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, 학자금 대출 상황이 재개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잔액 및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4분기에는 소비 및 GDP 성장률의 강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. 다만 강한 노동시장이 유지되는 한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
- **(RBC)** 팬데믹 기간 중의 초과저축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'23.3분기에도 강한 성장세를 보임. 다만 높은 수준의 금리 및 물가 영향으로 소비자 지출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GDP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
- **(Jefferies)** '23.3분기에는 소비자들이 휴가, 레크레이션 등에 크게 지출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. 학자금 대출 상황 등으로 점차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며 '24년 초에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판단
- **(JP Morgan)** 소비, 재고투자,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며 '23.3분기 GDP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임. 다만 예상과 달리 무역적자가 소폭 확대되었음. 연말에는 소비 모멘텀 축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
- **(UBS)** GDP 성장률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단기 채권수익률을 상승시킬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보지 않음. 근원PCE 물가상승률이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통계공표 직후 2년물 금리가 하락한 것과 같이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